



하나님의 캐스팅

* 6/18(목) ❶ 출애굽기 19-20 ❷ 룯기 1-2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 : 부르심

20장 하나님의 계명 : 응답

룯기

1장 나오미가 룯의 유다 귀환

2장 룯과 보아스의 만남

3장 룯이 보아스를 찾아감

4장 보아스와 룯의 결혼

참고도서

성경묵상(성서유니온)

WBC 주석, 두란노 How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Lesen und Verstehen I)

오래된 새 길.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가 되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9-20장과 룯기 말씀을 낭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19:5-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출 19장).

이집트 노예였던 백성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규칙>들을 주십니다(출20장).

격상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사랑의 법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신분과 지위에 걸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별의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 소유(히, 세글라) 특별한 보물, 수집물 중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Grand Story)와

인간의 마이너스토리(Minor Story)가 만난 것입니다.

생사화복, 희노애락, 일상 등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구원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대 서사시에 연결됩니다.

정체성과 존재 의미, 가치, 이유, 목적 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포함됩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캐스팅 됩니다.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 안에 캐스팅 된 순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등장인물로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해 집니다.

롯기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캐스팅>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구원스토리에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역할과 상황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마음껏 발현합니다.

주인공 롯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자손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더욱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여자 단둘이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롯을 눈 여겨 보시고 캐스팅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스토리에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는, 어쩌면 사소하고 소시민적인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이드은 여인을 기꺼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며 이삭을 주워야 하는 젊은 여인을 기꺼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과부, 고아, 맹인, 문둥병 걸린 사람, 여자 아이, 어린이,
성경은 세상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연과 특별한 조연들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롯>을 그분의 이야기에 캐스팅 하십니다.
시골, 일상, 소시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땅>이 없고 정식으로 <추수>할 수도 없어
떠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주류, 주목 받지 못하는 사람, 조직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인종과 출신, 성별로 인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람들,
이름대신 아픈 경험의 낙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보물로 캐스팅하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아픈 상처, 상실과 고통이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와 만나 간증과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스타>가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